

빙판을 감동·영광의 무대로 만들다



▲ 왼쪽부터 쇼트트랙 1,500m 황대현, 스피드스케이팅 1,500m 김민석, 쇼트트랙 1,000m 최민정. 편집=타운뉴스

남자 쇼트트랙의 황대현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한국팀에게 첫 금메달을 선사했다.

황대현은 9일(현지시간) 베이징 캐피털 인도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 결선에서 2분09초23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7일 쇼트트랙 남자 1,000M에서 심판진의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충격의 페널티 탈락과 부상까지 겪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거둔 금메달이어서 더욱 값지다는 평가다.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10일 “7일 페널티 이후 논쟁과 달리 황대현의 우승은 중국 누리꾼의 존중을 받았다.”며 “논쟁 없이 진짜 실력을 보여줬고 올림픽은 이어야 한다고 누리꾼들이 말했다.”고 전했다.

그간 쇼트트랙 편파 판정 논란과 관련해 자국 입장만을 대변해오던 중국 관영 언론이 한국 선수의 금메달 획득에 호의적인 논조의 기사를 낸 것은 이례적이다.

여자 쇼트트랙 최민정은 11일 캐피털 인도어 스타디움에서 열린 쇼트트랙 여자 1,000m 결승에서 1분28초46으로 2위를 차지하며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로써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때 여자 1,500m와 여자 3,000m 계주에서 2관왕에 올랐던 최민정은 올림픽 개인통산 3번째 메달을 목에 걸었다.

앞서 한국 빙속의 김민석은 8일 베이징 국립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겨울올림픽 남자 스피드스케이팅 1,500m에서 1분44초24로 한국팀의 첫 메달인 동메달을 따냈다. 김민석은 평창 대회에 이어 올림픽 두 대회 연속 메달을 획득했다.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간판 차준환도 올림픽 도전 사에 하나의 획을 그었다. 차준환은 10일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남자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93.59점, 예술점수(PCS) 90.28점, 감점 1점으로 총점 182.87점을 받았다.

그는 쇼트프로그램 점수 99.51점을 합한 최종 총점 282.38점으로 네이선 웨인(미국·332.60점), 가기야마 유마(310.05점), 우노 쇼마(293.00점), 하뉴 유즈루(283.21점·이상 일본)에 이어 전체 5위 자리에 올랐다. 한국 선수가 올림픽 피겨에서 5위 이내에 이름을 올린 건 김연아 이후 처음이다.

한편 미국 대표팀의 스노보드 선수인 한인 클로이 김은 10일 허베이성 장자커우의 겐팅 스노우파크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스キー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94.00점을 기록해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이로써 클로이 김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올림픽 2회 연속 우승의 위업을 이뤘다.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부터 정식 종목이 된 여자 스노보드 하프파이프에서 2회 연속 금메달은 이번 클로이 김이 최초다.

한국, FIFA 랭킹 29위 포트3 눈앞



▲ 사진=대한축구협회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국제축구연맹(FIFA) 순위에서 30위권 내 진입에 성공했다.

10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FIFA는 이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월 랭킹을 발표했다. 한국은 종전 33위에서 4계단 오른 29위에 자리했다.

지난해 12월 랭킹 발표 이후 한국은 A매치 4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쟁겼다. 아이슬란드, 몰도바와의 평가전에서 모두 대승을 거둔 뒤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에서도 승전고를 울렸다. 중동 2연전에서 레바논과 시리아를 각각 1-0, 2-0으로 꺾으며 일찌감치 본선행을 확정 지었다.

FIFA 랭킹도 상승했다. 15.61포인트를 얻어 29위에 자리하며 30위 내 진입에 성공했다. 아시아에선 이란이 가장 높은 21위에 일본은 3계단 올라 23위에 올랐다.

FIFA 랭킹이 중요한 이유는 단연 월드컵 때문이다. FIFA는 카타르 월드컵 시드 배정을 오는 3월 랭킹 기준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월드컵 본선 무대에선 32개 팀을 8개국씩 네 포트로 나누게 된다. 높은 포트에 위치할 수록 조별리그에서 강팀을 피하고 순위가 낮은 팀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현실적으로 한국이 노릴 수 있는 포트는 3번. 본선행을 확정했지만 남은 최종예선 2경기가 중요한 이유다.

한편 FIFA 랭킹 1위는 벨기에가 지켰고 그 뒤를 브라질, 프랑스, 아르헨티나, 잉글랜드 등이 따랐다.

Kim's Handyman 리모델링전문

Home Remodeling

페인트/ 부엌
화장실/ 마루
타일/ 캐비넷
윈도우/ 지붕수리
전기/ 플러밍
각종 리모델링

작은일도 합니다!

Kim's Handyman
562.833.0766